

문화적 눈으로 구약성서 읽기

- 창세기 38장을 중심으로 -

김남일 (백석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글

II. 창세기 38장 분석

III. 문제가 될 만 한 이야기들

1. 첫째 이야기: 시형제 결혼제도(Levirate)
2. 두 번째 이야기: 유다의 거짓말
3. 세 번째 이야기: 유다의 성매매
4. 네 번째 이야기: 다말의 기만적인 행동

IV. 결 론

1. 본문의 윤리적 행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었다.
2. 유다의 행위는 성서 윤리적으로 볼 때 적합한 것은 아니었다.

• ABSTRACT •

Reading the Old Testament with Cultural View Point
(Focus 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 38)

Kim, Nam-II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Judah and Tamar's attitudes as found in Genesis chapter 38. As such many scholars maintain this chapter to be redacted and unnatural in character and form. Scholars from the Historical criticism camp insist this chapter provides an explanation of the origins of the Judah tribe or Israel. Though their opinions are of reasonable merit this article supports another view that the chapter is necessary for redemptive fulfillment.

To show this, this article articulates the Levirate marriage, the deception, prostitution, and the deceitful ways of Tamar, and provides interpretations through careful theological methods. Above all, this article seeks to show that these hard to understand portions in the text were negatively influenced by ancient near eastern countries, especially from Canaan.

The primary intention of the biblical writer was not to pursue an ethical approach but a redemptive one. This text is written by the writer to emphasize redemptive goals, and that Perez became one of the messianic ancestors. That is the reason for Genesis 38. However, through out this article I have also tried to harmonize these two ways of interpretation.

This article is comprised of 4 chapters. Chapter 1 is the introduction. Chapter 2 provides an explanation of the text according to story type. Chapter 3 provides an explanation of four themes according to ethical questions and writer's answers. Finally in chapter 4, I provide a conclusion to this article according to the way of OT viewpoint.

Key words: Levirate, Tamar, Judah, Deception, Old Testament Cultures

I. 들어가는 글

창세기 38장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장(章)이다. 37장까지 이어지던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38장에서 잠시 끊어졌다가 39장부터 이어지는 형국이다. 그런 이야기의 흐름에서 본다면 38장은 매우 어울리지 않는 본문이다. 더군다나 38장은 요셉의 이야기와 관련된 것도 아니요 갑작스럽게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역시 한 가정의 비극적인 역사이다. 유다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두 아들이 큰 며느리인 다말과 동침을 한 후 죽는 사건이 나온다. 그리고 아직 어린 셋째 아들을 살리고자 아버지 유다가 며느리를 속이는 이야기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관계를 맺어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호적 정리를 하기 힘든 아이의 출생으로 끝을 맺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은 많은 학자들에게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았다. 폰 라드는 창세기 38장의 이야기가 매우 부자연스러운 부분으로서 편집자가 이 이야기를 삽입한 이유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사라진 것(창 37:29-36)과 같이 38장에서 잠시 사라지게 함으로써 요셉의 이야기를 매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의도적인 편집이라고 주장한다.¹⁾ 고든 웬함(Gordon Wenham) 역시 본문의 이야기가 없이 37장에서 39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하면서 이 이야기는 39장-50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²⁾

그 외에 스킨너(J. Skinner)는 초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가나안의 아들람 사람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하면서 자료비평

1) Gerhard von Rad, "Genesis,"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61), 356-357.

2) Gordon Wenham, "Genesis," *World Biblical Commentary* (Texas: World Books, 1994), 363.

의 관점에서 38장을 평가하고 있으며,³⁾ 베스터만(C. Westermann)은 38장이 독립적인 전승으로 내려오다가 39장 앞에 삽입되어서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 야곱의 자손들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로 자리를 잡았다가 나중에는 유다지파의 전승에 관한 이야기로 발전되었다고 한다.⁴⁾

이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는 본문처럼 보이는 창세기 38장이 왜 성경에 기록되고 보존되었을까? 분명한 것은 어색해 보이는 창세기 38장의 내용도 성경의 구속사적인 이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보존되고 기록되었을 것이다. 류폴트(Leupold)의 말대로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인 우리들이 저지르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위대한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장을 기록했다고 본다.⁵⁾

그러나 창세기 38장의 편집사(編輯史)만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본문을 주해하면서 필요할 경우 편집사적인 해석을 시도하였으나 이 글의 주된 의도는 성서에 나오는 관습이나 문화적인 의례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데 있다. 즉 우리 시대의 안목과 잣대로 성서의 이야기를 판단하고 평가하며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안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화적인 의례들이나 관습들이 왜 그 시대에는 일반적인 것들로 받아들여졌으며, 성서 기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비윤리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글은 ‘구약시대의 문화적 시각으로 성서 읽기’를 위한 글이다. 아무쪼록 이글에 대한 현대적인 시각으로서의

3) John Skinner, “Genesis,”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 & T. Clark, 1980), 450-451.

4) 클라우스 베스터만, “Genesis”, 강성렬 옮김, 『창세기 주석』(서울: 한들출판사, 1998), 382.

5) 류폴트, “Genesis”, 최종태 옮김, 창세기(하) 『반즈 성서주석』(서울: 크리스천서적, 1999), 858-859.

판단은 자제하고 구약적인 시각으로 성서 읽기를 시도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했다.

II. 창세기 38장 분석

창세기 38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 a. 유다의 결혼과 가족(1-5)
 - b.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의 죽음(6-10절)
 - c. 셀라를 살려둠(11절)
 - d. 유다의 매매춘과 다말의 임신(12-19절)
 - c' 유다가 다말을 찾음(20-23절)
 - b' 다말의 등장과 유다의 회개(24-26절)
- a' 세라와 베레스의 탄생(27-30절)

창세기 38장은 유다가 가나안 땅 아둘람(Adullam) 사람들의 땅인 히라(Hirah)와 가까이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다가 수아(‘풍부한’이라는 의미)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다. 여기서 유다의 아내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가나안 여인이다. 그의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백성 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는 행위로 보인다.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의 나홀(Nahol)까지 가서 리브가를 구했던 것(창 24장)과는 달리 유다는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얻은 세 아들 중 첫 번째 아들인 엘(El)을 위해서 다말(Tamar)을 데려온다.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

이였다. 7절은 “여호와와 보시기에 악하므로”라고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악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스키너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신명기사가의 신학적 주제인 여호와와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엘을 향한 판단 만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유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신학적인 판단이다”라고 했는데⁶⁾ 이는 매우 적절한 지적으로 보인다. 아마 유다의 잘못된 선택이 엘에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었을 것이다.

이후 둘째 아들인 오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유다는 셋째 아들인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다. 그러나 유다는 세라가 장성한 후에 형의 유업을 이을 후사를 잇기 위해서 다말을 불러야 하지만 그러지 않자 다말이 직접 나섰다.

마침 친정어머니인 수아의 딸이 죽은 후 유다는 친구인 히라와 함께 자기의 목장에서 양털을 깎는 것을 보기 위해서 왔다가 창녀로 분장한 다말과 관계를 맺게 되고 다말은 임신을 했다(12-18절). 유다의 성욕(性慾)을 이용하여 거사를 성사시킨 다말은 매우 치밀하고 용의주도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성서기자는 다말의 이러한 행동을 비난하지 않는다. 대신 성매매를 한 유다의 행동을 사면초가(四面楚歌)로 몰아가면서 이 사건을 극적으로 반전시키고 있다(20-25절).

이 본문은 유다의 매매춘과 다말의 임신을 정점으로 다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의 개인적인 성욕을 이용한 다말의 이 행위에 대해서 성서 기자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26절)라는 표현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그는 다말의 행위에 대해서 선악간의 윤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독자들에게 맡기고 있다. 물론 유다 역시 처음에는 다말에게 보편적인 윤리 잣대로 그녀를 평가했다. 24절에서는 “석 달쯤

6) Skinner, “Genesis,” 460.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하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녀를 임신시킨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라는 사실을 알고는 도덕적인 평가의 잣대를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다는 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가련한 한 여인을 인습에 의해서 죽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브루지만(H. W. Bruggemann)은 유다의 이러한 행동의 원인은 “힘없고 약한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⁷⁾ 루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대한 실수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저들이 받는 위로에 대해서 전해주는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함으로써 기독교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⁸⁾

이 본문은 그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내기지 않는다. 다만 가능한 해석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찬 여인인 다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유다의 가족들(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세속화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가족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말의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⁹⁾

7) 월터 브루저만/ 강성렬 옮김, 『창세기』(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464.

8) 류폴드, “Genesis”, 최종태 옮김, “창세기”, 859에서 재인용.

9) 클라우스 베스터만, “창세기”, 385; 목회와 신학 편집부, “창세기,” 『두란노 how 주석 구약시리즈 1』(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5), 288을 참조하라.

III. 문제가 될 만 한 이야기들

1. 첫째 이야기: 시형제 결혼제도(Levirate)

이 사건의 발달은 바로 후손을 보존하고자 하는 강력한 인습(Levirate)에 근거한다. 신명기 25장 5-6절은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자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위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미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고 했다.

이 구절은 우리를 매우 당황하게 만드는 본문이다. 형이 아들이 없이 죽고 나면 형의 아내, 즉 형수와 관계를 해서 그녀를 아내로 삼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하여금 형의 재산을 물려받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 관습을 지키기 않는 사람에게는 모멸감을 주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라는 후속 조치가 뒤따르고 있다(신 25:6-10).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 법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를 살펴보자.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제도는 신명기 법률에 들어있을 뿐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매우 흔하게 알려져 있던 제도였다는 사실이다.¹⁰⁾ 다만 이 제도가 고대 근동의 결혼제도와 다른 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형이 아들을 남겨두지 않고 죽었을 때, 둘째, 두 형제가 한 곳에 살고 있을 때, 셋째, 비록 동생이 형을 대신하여 형수와 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기는 했지만 결코 함께 가정을 이루지는 않았다는

10) Richard Kalmin, “Levirate law,”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4, edited by D. N. Freedman (New York: Double Day, 1992), 298.

점이다.¹¹⁾

시형제 결혼제도는 아시리아 법전에서도 언급되어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아시리아에서는 결혼관계를 통해서 취한 형수뿐만 아니라 형이 약혼을 한 상태에 죽었다고 해도 동생이 형의 후손을 낳기 위해서 형수와 관계를 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법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¹²⁾ 히타이트 족속의 법률에서도 시형제 결혼제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세부적인 규정에 대하여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누주”(Nuzu)와 “후루”(Hurriter) 족속도 시형제 결혼제도가 알려져 있었고 “엘람”(Ellam)과 우가릿(Ugarit)에서도 이 제도는 있었다.¹³⁾

놀랍게도 이 제도는 지금도 실시되고 있는데 인도와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브라질의 칼차퀴스(calchaquis)에서도 발견되어지는 관습이다. 힌두교의 관습에 의하면 비록 동생이 형수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기는 하지만 결혼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이 의무는 형제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다.¹⁴⁾

시형제 결혼제도의 목적은 대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재산의 보존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대사회에서 부족의 재산은 침략이나 목축,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축적이 된다. 그런데 형이 죽었을 경우 그 재산의 소유권을 가진 아들이 없을 때 유일한 상속자인 형수가 만일 다른 부족의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면 그 재산을 지킬 법적인 방안이 없는 것이다. 또한 아들이 없으므로 죽은 형은 자신의 혈통을 이을 수 없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시형제

11) S. R. Driver, “Deuteronomy,”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 & T Clark, 1978), 281, 282.

12) 몰랑 드보/이양구 옮김, 『구약시대의 생활 풍속』(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79.

13) Ibid., 79.

14) Ibid., 80.

결혼제도를 실시했던 것이다. 탈무드에 의하면 혈통을 이을 시형제의 나이가 어릴 경우 그가 13세 이상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¹⁵⁾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장성하지 않은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는데 이 본문이 탈무드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다.¹⁶⁾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나 룯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모두 이러한 결혼문화에 대한 당시의 관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처럼 분화(分化)된 사회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이지만 우리의 관점을 부족 중심의 유목민 시대로 전환을 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의 일방적인 문화적 관점이 순수한 그들의 관습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다.¹⁷⁾ 그들의 시대에 그들만의 문화적 관점을 이해하고 이 이야기를 본다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관습이다.

2. 두 번째 이야기: 유다의 거짓말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도.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

15) “Levirate marriage and Halizah,” *Encyclopedia of Judaica*, vol. 11 (Jerusalem: Keter publishing house), 122, 123.

16) 김남일, 『29가지 구약문화 이야기』(서울: 살림출판사, 2007), 72.

17) Ibid., 75-79.

니하였더라.”

두 아들의 죽음은 유다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다. 그 두 아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죽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원인을 다말이 불운을 가져다주는 여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¹⁸⁾ 그래서 막내아들인 셀라도 죽을까봐 그녀를 친절로 돌려보낸 것이다. 유다의 이러한 행동은 한 여인이 가족 안에서 해야만 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일일 뿐 아니라 그녀를 온갖 사회적인 위험으로 던져 넣은 행위로써 매우 비겁하고 탈관습적인 행위였다.¹⁹⁾ 하나님의 언약백성인 유다가 어찌 이리 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의아하다. 물론 그의 의도가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26절에서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의도적인 거짓말을 한 것이다.

구약성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 우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민 23:19) 미워하신다(잠 6:16-19).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다(시 63:11; 잠 19:5; 겔 13:8). 뿐만 아니라 십계명의 제 아홉 번째 계명도 거짓말의 금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구약성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짓말이야말로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부정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구약성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야웨의 심판에 관한 기사를 종종 언급함으로써 거짓은 야웨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18) 류폴트는 이런 생각은 ‘가나안의 이교적인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나면 항상 그 원인을 여자에게 돌리던 가부장적인 인습에 근거한 생각이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류폴트, 창세기, 862). 고대에도 여신(이쉬탈)이 그의 사랑하는 사람 곁에 누우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설화가 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을 불운을 가져오는 여신 이쉬탈과 같은 존재로 여겼을 수 있다(J. Skinner, ‘Genesis,’ 452).

19) Terence E. Fretheim, “Genesis,”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1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605.

아간의 사건(수 7:16-26)으로서 이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성서 기자가 아간 개인의 거짓말(거짓 행위)을 종교 제의적인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이 거짓말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⁰⁾ 그래서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 단호하게 나타난다.

위에서 언급한 버틀러의 이러한 지적은 비단 한 개인의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거짓말로 속여 예언한 예언자들에게도 야웨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은 거짓말의 심각성을 고발함과 동시에 거짓말에 대한 대가 역시 매우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렘 23:2).

거짓말은 두 종류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하얀 거짓말(선의의 거짓말)’이고²¹⁾ 다른 하나는 ‘의도적인 거짓말’ 즉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의도에서 하는 거짓말이다.

먼저 ‘선의의 거짓말’이다. 홉킨스(Ezekiel Hopkins)는 악의의 거짓말(black lie)과 선의의 거짓말의 차이점을 다음의 세 가지로 보고 있다.²²⁾ 첫째, 진실이 아닌 언동이 있어야 한다. 둘째,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져야 한다. 셋째, 상대를 속여 잘못에 빠지게 하려는 의지 및 의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거짓말은 악의적인 거짓말이고 그 외의 거짓말은 선한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생 라합의 경우(수 2장)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한 사무엘의 거짓말(삼상 16:1-13) 등은 성서기자의 부정적인 판단을 받지 않고 있다.

20) Trent T. Butler, ‘Joshua’, *WBC*, vol. 7 (Waco: World Book, 1983), 267.

21) 이 용어보다는 사실상 ‘봉사의 거짓말(mendacium officiosum)’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한 것이다. 이 라틴어는 ‘이웃의 유익을 위한 거짓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J. Douma, *The Ten Commandments: Manual for Christian Life* (Philipsbrug, Penn: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1996), 325, 신원하, 『교회가 꼭 대답해야 될 윤리 문제들』(서울: 예언커뮤니케이션, 2001), 133에서 재인용.

22) Ezekiel Hopkins, “Exposition of the Ten Commendment,” *The Whole Works of Ezekiel Hopkins* (Edinburgh: A. & C. Black, 1841), 134.

오히려 기생 라합의 경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언급은 하지 않고 메시아 예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은 여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야고보는 이에 대하여 그녀를 높이 칭찬하고 있으며(약 2:25) 히브리서에서도 라합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히 11:31).

물론 선의의 거짓말의 윤리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으나 적어도 성서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는 무정적인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성서의 관심은 선의의 거짓말이 가능한지 아닌지가 아니라 ‘왜’ 거짓말을 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의도적인 거짓말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카잡(כזב)’이나 ‘쇄칼(שׂקל)’이다. ‘카잡’이라는 단어는 구약성서에서 16번 사용된 단어로써 그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다. 혐의(愾意)로는 거짓말이나 거짓 행동을 의미하지만, 광의(廣意)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나 피조물에 부여한 그의 성품이나 말씀, 의지에 대항하는 행위를 포함하기도 한다.²³⁾ 이 단어는 우가리트어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제국적 아람어(Imperial Aramaic), 유대인 아람어(Jewish Aramaic), 시리아어(Syriac), 그리고 만다리어(Mandaic)에서도 발견될 만큼 매우 광범위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 이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가 “거짓을 말하다” 혹은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다”라는 의미이지만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가 ~에게 거짓을 말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즉 이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말이다.²⁴⁾

‘쇄칼’의 일반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다섯 개이다.²⁵⁾ 창세기 38장의 이

23) Eugene Carpenter/M. A. Grisanti, “כזב,”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2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1997), 621. 이하 NIDOTTE로 표시함.

24) G. Johannes Botterweck/Helmer Ringgren/Heinz Josef Fabry, “כזב,”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7 (Grand Rapids: Eerdmans, 1995), 104-107. 이하 TDOT로 표시함.

이야기에서는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두 번째의 의미가 다말의 행동 안에 숨어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단어는 종교적인 의미와 결합되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다. 즉 하나님을 부인하는 특징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로 보인다(수 24:27; 사 59:13; 욥 31:28).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자세에 대한 해답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야웨의 지시를 거부하고 그의 법에 대항하거나 언약을 깨뜨리는 행동을 지적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호 10:13).²⁶⁾

그러나 의도적인 거짓말에 해당되는 본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바로 유다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이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베레스가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의 조상이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유다가 겪은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그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은 의도된 거짓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기 때문이다.²⁷⁾

3. 세 번째 이야기: 유다의 성매매

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여겨진다.²⁸⁾ 구약성서에도 성을 사고

25) 첫째, “~을 말하지 않는다”(not say that) 혹은 “숨긴다”(conceal)라는 의미이고, 둘째는 “가장한다”(dissemble)라는 의미이며, 셋째는 “가장한다”는 의미가 발전된 “아첨한다”(flatter)라는 의미이다. 넷째는 “~이 아니라고 말한다” 혹은 “부인한다”라는 의미이다. 마지막 다섯째는 “~이 아닌 원인이 된다”, 혹은 “버린다”라는 의미이다.

26) G. Johannes Botterweck/Helmer Ringgren/Heinz Josef Fabry. “שָׁבַח,” *TDOT*, vol. 7, 132-135. Eugene Carpenter/M. A. Grisanti, “שָׁבַח,” *NIDOTTE*, vol. 2, 622-633.

27) 잠언 21:3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시편 106:3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무엘하 22:21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28) 우리나라의 ‘성매매 방지법’은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 시행되었다.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보통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지는 형식의 성매매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정보를 주지 않고 있지만 다양한 본문을 통해서 추정해볼 수 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성매매는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5장에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위하여 ‘염소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²⁹⁾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성을 사거나(혹은 아내를) 팔 때는 적절한 대가를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성매매가 비록 이스라엘의 문화가 아니라고 해도 이스라엘 문화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⁰⁾ 유다의 경우 가나안의 아들람 사람인 ‘히라’와 가까이 지내면서 가나안의 풍습에 깊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성매매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다의 성매매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유다의 성매매는 이스라엘의 풍습이 아닌 가나안 안에 들어있던 문화의 유입이라고 볼 수 있다. 가나안의 문화는 성(性)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가나안의 풍요와 다산(多産)의 신인 ‘바알’ 신화에서 유래하고 있는데³¹⁾ 가나안에서의 성은 ‘풍요와 다산’을 위한 직접적인 도구였다. 원래 이 ‘성 행위’는 바알의 신전에서 남창(男娼)과 여창(女娼)이

법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이 두 법은 성을 매매하는 자와 매수하는 자, 그리고 매매하게 하는 자(포주)들에 관한 처벌 및 징계의 내용을 담고 있다(두산백과 출처).

29) 염소는 ‘사랑의 여신’을 상징하는 동물이었는데 ‘사랑’과 ‘성’을 연결시키는 좋은 상징의 동물이었을 것이다(J. Skinner, ‘Genesis,’ 453.)

30)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 역시 성매매 여성이었을 확률이 높다. 그녀를 나타내는 ‘기생’은 히브리어 ‘조나(zona)’인데 이는 ‘음란하다’는 의미로서 보통의 여성들에게는 잘 붙이지 않는 별명이다. 그러므로 가나안에서는 이와 같은 성매매 여성들이 매우 흔하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1) 여기에 관하여는 김남일, 『야웨와 바알』(살림: 2004)을 참조하라. 바알신앙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야웨신앙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서 유래했는데 나중에는 신도들과 여창(女娼), 남창(男娼)들과 여신도들 간의 성행위로 발전되었다. 그러다보니 가나안의 사람들은 성행위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으며 거룩한 행위로 여기기까지 했다.³²⁾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그의 후손들은 아주 급속하게 가나안화 되어갔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의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때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은 지참금을 가지고 디나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가나안과 이스라엘에서는 흔하지는 않았지만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³³⁾ 8절에서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는 하몰의 말에는 그의 아들이 디나를 강간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든지, 아니면 알았다고 할지라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연하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하지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혹 하몰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풍습을 알고 그 풍습에 의거해서 협상을 하러 왔을 수도 있다. 다만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은 유대인인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부끄러운 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7절). 그래서 히위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살육이 일어났다(25-29절).

그 후 35장부터는 야곱의 열 두 아들들의 이름이 나온 후 급속하게 가

32) 실제로 바알이 죽음의 신 모트(Mott)의 입으로 들어가기 전 들판에 있던 암송아지와 성적인 교접(交接)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바알과 아세라가 인간과 같이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짐으로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믿었다(장일선, 『구약성서의 시문학』, 대한기독교사회, 1994, 374-428 참조).

33) 신명기 22장 28~29절에도 보면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겜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육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서 간혹 처녀를 강간하는 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안에 정착을 하고 넓은 지역으로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가나안의 문화에 깊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때 유다가 본문의 사건을 저지른 것이었다. 그러므로 유다의 성매매를 이스라엘의 문화나 구약성서의 가르침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구약성서는 성의 오남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출애굽기 20:14에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열왕기상 15:11-12절은 “아사가 그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의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라고 하면서 성과 관련된 행위를 종교적인 행위와 관련지어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레위기 20:10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살벌한 경고를 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이스라엘에 유입된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의 영향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성서기자는 다말과 유다의 이 성매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³⁴⁾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4장 15-16절에서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고 함으로써 가나안의 문화에 깃들여있는 종교적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다의 이러한 태도는 구약성서 기자가 극도로 혐오하고 비판했던 가나안의 문화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기자는 그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다. 그것은 아마 이 이야기의 중심이 유다

34) Terence E. Fretheim, “Genesis,” 606.

의 성매매가 아니라 다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어가시는지에 관한 것이기에 그리 중요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스터만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결심한 한 여인의 이야기로만 볼 뿐이다. 그것에 대한 어떠한 도덕적인 판단도 내리지 않아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³⁵⁾

그러나 그의 성매매에 대한 윤리적인 평가는 분명해야 한다. 비록 이와 같은 성매매가 바빌론이나 가나안에서는 흔한 일이었으나³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방식은 아니다. 비록 강간에 대한 규정이 성서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강간 한 남자가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할 강제적인 규정 이어서 여성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는 법안이지만 유다의 경우는 매춘(賣春)인 셈이다. 매춘에 대한 금지를 강조한 율법도 있다. 대표적인 구절이 레위기 19장 29절인데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는 강력한 매춘 금지 규정이 있다. 또한 레위기 21장 14절에서는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나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앞의 구절보다 더 직접적인 매춘 금지의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다의 매춘은 매우 중대한 범죄인 셈이다.

그러나 이 또한 성서가 그의 성매매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의 행위를 정당하게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다의 행위가 윤리적 비판의 대상이거나 종교적으로 단죄의 주된 대상이 아니었다. 성서기자는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인 우리들이 저지르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위대한 분이심을 알게 하

35) 클라우스 베스터만, “Genesis”, 강성렬 옮김, ‘창세기’, 383-384.

36) C. Westermann, “Genesis 37-50,” *A Commentary*, translated by John J. Scullion S. J.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Company, 1986), 38.

기 위하여” 이 장을 기록했다³⁷⁾는 류폴드의 생각과 같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어갈 수 없는 메시아의 가계를 잇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허용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4. 네 번째 이야기: 다말의 기만적인 행동

우리나라 말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를 보여주는 것이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과정은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PTS)’를 강조하시고 생활 속에서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신다(암 1-3장).

다말은 과부의 복장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다나 길 결 ‘에나임 문’에 앉았다. 일반적으로 과부들은 면박을 하지 않는다. 창세기 24:26에는 “중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고 하면서 처녀인 리브가가 면박으로 얼굴을 가린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창녀들은 ‘문 입구’에서 몸을 팔았다.³⁸⁾

고대 근동에서는 과부들이 새로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창녀로 분장을 하고 길가에서 남자를 기다리는 일들이 많았다고 한다. 헤로도투스(Herodotus)에 의하면 고대 바빌론에서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여자라면 평생에 한 번은 아프로디테(Aphrodite) 신전에서 낫선 남자와 잠을 자야만 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여인은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37) 류폴드, “Genesis”, 최종태 옮김, 창세기(하) 『반즈 성서주석』, 858-859.

38) 예레미야 3:2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 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에스겔 16:25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가서 있으면 낯선 남자가 와서 여인을 고른 후 그녀를 데리고 밖으로 가서 성 관계를 하는데 이 남자가 화대(돈)를 주기 전까지는 신전을 떠나지 않았던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³⁹⁾

한편 고대 근동에서는 사랑의 여신인 아스다롯에게 헌신을 서약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처녀가 자신의 처녀성을 아스다롯의 신전에 드리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 형식과 순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길이 없지만 이와 같은 의식들의 영향을 받은 고대 사회에서 한 과부가 낯선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창기의 복장을 하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것은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⁴⁰⁾

이렇게 본다면 다말의 행위 역시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이 행하고 있던 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녀는 이 방법이 그 당시에 매우 보편적인 방법이었음을 알고 윤리적인 판단에 여부없이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을 취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유다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반응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다가 이방인의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말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유다를 비난할 수는 있지만 다말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그녀의 윤리적인 기준은 이방문화의 그것에서 나온 것이기에 성서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유다의 경우는 다르다.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기자는 유다도, 다말도 아무런 윤리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

39) Gehard von Rad, "Genesis," 359.

40) Ibid.

IV. 결 론

유다의 아이를 가진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다. 먼저 태어난 아이는 ‘베레스(나오다)’이고 뒤에 태어난 아이는 ‘세라(?)’다. 매우 부적절한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죄의 자식들’인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가에 대한 해답이 신약성경에 나온다.

마태복음 1장에 의하면 ‘베레스’는 다윗의 9대 조상이 되었고 예수의 직계 조상이 되었다. ‘세라’역시 유다지파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위를 주렸 다(민 26:16; 대상 6:9). 특히 베레스가 받은 복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당당하게 예수의 족보에 올라 있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창세기 38장이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39장에서 펼쳐질 요셉의 본격적인 활약과도 무방하지 않다. 요셉은 메시아의 구속사를 이어 갈 계보가 아니라 베레스가 그 계보이다. 그런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전부 차지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 마치 요셉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특히 39장 이후에 나타나는 요셉의 활약상은 그에 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서론을 위한 도입부분을 위한 이야기이다.⁴¹⁾ 그런데 만일 38장의 이야기에서 베레스가 등장한 기원을 밝히지 않았다면 메시아의 계보에서 차지하는 베레스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베레스의 등장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창 46:12; 민 26:20, 22; 룻 4:12~18; 대상 27:3) 구약성서 전체에서 이어질 메시아적 계보에 흠이 없게 하려는 저자

41) Leupold, op., cit., 122~123.

의 의도적인 첨가인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원인론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이 문제는 구약성서에서 다루고 있는 ‘악인의 형통’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물은 것이 바로 ‘악인이 왜 형통한가?’라는 것이었다.⁴²⁾

우리가 원인론에 빠지면 이야기 전체를 볼 수 없게 되고, 결과론에 빠지면 원인을 무시하게 된다. 원인론적으로 본다면 이 이야기는 자식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시아버지를 상대로 벌인 다말의 권리 지키기일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이 이야기는 메시아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결과에 대해서 윤리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1. 본문의 윤리적 행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피안의 도시가 아니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곳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경계지역이다.⁴³⁾ 그러므로 거의 동일한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고대의 문화가 신전이나 종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기에 가나안의 문화는 바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문화는 야웨를 중심으로 형성된 아주 다른 것이었으나 실상은 거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했다. 쿤틸렛 아즈루드(Kuntillet Azrud)의 발굴에서 나온 것과 같이 야웨를 바알의 부인으로(YHWH of

42)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 특히 읊기는 신정론(神正論)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모순점들을 보면서 ‘왜 악인의 형통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만든다.

43) 다말의 아버지는 유대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곳인 아돌람에서 살고 있었다.

Baal) 소개할 정도니 그들의 문화적 종교적 혼합주의야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더욱 심한 지역은 이스라엘의 문화와 가나안의 문화를 전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⁴⁴⁾

이런 지리적인 여건 뿐 아니라 종교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고대 근동은 바로 이웃집이나 다름이 없었다.⁴⁵⁾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아웨의 약속의 백성이었고 그들만의 규례를 지킬 것을 강조했다지만 문화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결과 본문의 여러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규제도 없이 그들의 삶에 스며들었을 것이다.

2. 유다의 행위는 성서 윤리적으로 볼 때 적합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창세기 38장의 사건이 구속사에서 필요한 이야기이기는 하나 그 행위 자체를 두고 볼 때는 적절한 것이 아니었다. 물론 성서기자가 이를 두고 어떤 형태의 비난도 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은 창세기 38장의 기록 목적이 윤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의 행위 자체가 윤리적인 정당성을 얻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다와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문화에 깊은 영향을 받아서 아무런 문제 의식도 없이 행한 일이지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살아 가야 할 방법과 길이 따로 있다. 유다는 그런 길을 벗어난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44) 멘덴홀(Mendenhall)이 가나안 정착설 네 가지 가운데 '평화적 이주설'을 주장할 때 그가 내세운 이론이다. 만일 이스라엘이 급속하게 가나안을 정복했다면 기존의 모든 문화를 파괴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문화적, 『사회학적 성서해석』, 102). 물론 그의 주장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한 가지 잘 지적한 것은 가나안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문화가 그리 차이가 많지 않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5) '바알 브룻' '바알 하몬' 등 '바알'에서부터 파생된 다양한 신의 이름이 고대 근동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는 농경문화의 신인 바알이 자연과 바람을 거느리는 신으로서 폭넓게 숭배되어 왔음을 의미한다(김남일, 『아웨와 바알』, 67).

없는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범화된 윤리의식의 잣대를 가지고 창세기 38장의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구약성서에 대한 재해석의 의무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의도에서 바라본 유다의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온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태도로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유다와 다말의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는 우리에게 성서의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두 가지의 태도, 즉 구속사적인 해석과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서의 적절성에 대한 해석이라는 과제를 안겨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성서를 해석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남일. 『야웨와 바알』. 서울: 살림출판사, 2004.
- 김남일. 『29가지 구약문화 이야기』. 서울: 살림출판사, 2007.
- 드보 롤랑. 『구약시대의 생활 풍속』. 이양구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 류폴드/최종태 옮김. 창세기(하). 『반즈 성서주석』. 서울: 크리스천서적, 1999.
- 목회와 신학 편집부. “창세기,” 『두란노 how 주석 구약시리즈 1』.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5.
- 문희석. 『사회학적 성서해석』. 서울: 양서각, 1984.
- 신원하. 『교회가 꼭 대답해야 될 윤리 문제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1.
- 윌터 브루거만/강성렬 옮김. 『창세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장일선. 『구약성서의 시문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클라우스 베스터만/강성렬 옮김. 『창세기 주석』. 서울: 한들출판사, 1998.
- Butler Trent T. ‘Joshua’. *WBC*. vol. 7. Waco: World Book, 1983.
- Carpenter Eugene/ Grisanti M. A. “בָּהָשׁ,” *NIDOTTE*, vol. 2.
- Carpenter Eugene/ Grisanti M. A., “בָּהָשׁ,”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2,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1997.
- Douma J., *The Ten Commandments: Manual for Christian Life*, Philipsbrug, Penn: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1996.
- Driver S. R., “Deuteronomy,”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T Clark, 1978.
- Fretheim Terence E., “Genesis,”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1,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 Hopkins Ezekiel, “Exposition of the Ten Commandment,” *The Whole Works of Ezekiel Hopkins*, Edinburgh: A. & C. Black, 1841.
- Johannes Botterweck G./ Ringgren Helmer/ Fabry Heinz Josef. “בָּהָשׁ,”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7, Grand Rapids: Eerdmans, 1995.
- Johannes Botterweck G./Ringgren Helmer Josef/ Fabry Heinz. “בָּהָשׁ,” *TDOT*, vol. 7.

- Kalmin Richard, "Levirate law,"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4, edited by D. N. Freedman, New York: Double Day, 1992.
- "Levirate marriage and Halizah," *Encyclopedia of Judaica*, vol. 11, Jerusalem: Keter publishing house.
- Rad von Gerhard, "Genesis,"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61.
- Skinner John, "Genesis,"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 & T. Clark, 1980.
- Wenham Gordon, "Genesis," *World Biblical Commentary*, Texas: World Books, 1994.
- Westermann Claus, "Genesis 37-50," *A Commentary*, translated by John J. Scullion S. J.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Company, 1986.

논문투고일: 2013. 10. 14.

심사개시일: 2013. 11. 13.

게재확정일: 2013. 12. 13.

• 국 문 초 록 •

창세기 38장은 성서 이야기 전체 흐름에서 본다면 매우 어울리지 않는 본문이다. 이 본문 안에는 적어도 네 가지의 윤리적인 논쟁거리가 들어있다. 그것은 바로 시형제 결혼제도, 거짓말, 성매매, 그리고 다말의 기만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현대적인 신학 개념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으나 구약성서가 기록된 시대만 해도 지금과 같은 시각에서 천편일률적으로 그 정당성을 평가할 수 없는 시대였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다말과 유다의 행위들을 보면 아무런 죄의식이나 윤리적인 비판을 받지 않은 채로 관습처럼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들의 윤리적인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현대적인 시각에서 그들의 행위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그 시대적인 사람의 자리에서 본문에 나오는 관습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거나, 적어도 비난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성서에 나오는 관습과 문화적인 사람의 자리를 이해하기 위한 '성서 읽기'의 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성서는 윤리적인 책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다와 다말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메시아적 가계(家系)가 설명이 가능해진다. 여러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본문에서 다루게 될 네 가지의 윤리적인 주제들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글이다.

주제어: 다말, 유다, 형사취수제도, 거짓말, 구약문화
